

# 미래유치원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에서—

공화국의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에서 바둑소조를 통해 꼬마바둑명수들을 키워내고 있다.

훌륭한 제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듯이 나이 어린 재간둥이들의 뒤에는 부모들도 미처 몰랐던 재능의 싹을 찾아내고 꽃피워주기 위해 애쓰는 이곳 유치원교양원들의 노력이 깃들여 있다.

이곳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성격과 심리, 소질 등을 깊이 관찰하면서 합리적인 교수방법들을 적용하고 새로운 교편물들을 창안제작하여 교수교양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에 좋은 바둑은 이곳 유치원교양원들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교육내용의 하나이다.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에게 민속놀이이면서도 높은 급의 지능경기종목인 바둑의 유쾌를 비롯한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어린이들이 바둑에 취미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바둑돌을 손에 쥐는 방법, 바둑판위에 돌을 놓는 방법으로부터 바둑의 묘리와 수읽기 등에 대하여 우리 말의 어원과 결부시켜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교양원들에 의해 유치원어린이들은 흥미있는 바둑의 세계에 끌려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 어린이들은 논리적사고력과 집중력은 물론 공간적표상능력과 자체력, 인내력 등 좋은 품성을 배우고 있다.

이곳 유치원어린이들이 지난 기간 바둑경기에서 받은

상장만 하여도 수십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 나날 이곳 유치원교양원들은 《유치원바둑배우기》를 비롯한 여러권의 교재들을 집필하였다.

기자와 만난 홍정미교양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바둑을 배우주는 과정에 유치원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교수방법들을 새롭게 터득하였다. 어린이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어나가도록 하겠다.》

본사기자 림광훈



## 발견하는 국가산업미술 (1)

조선로동당창건 76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산업미술에 호가들이 창작한 각종 도안들과 실현제품, 모형 등이 전시되



### 110hp트랙도르도안

110hp트랙도르도안은 협동전야를 경제하게 내달리는 트랙도르의 모습이 직관적으로 안겨오게 형태학적으로 완성되어있다. 앞시창에서부터 앞으로 나가면서 미끄러져내리는듯 한 경사를 이룬 기관부형태는 속도감이 강하게 안겨온다.

트랙도르의 기본색은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무쇠철마라는 뜻이 안겨오게 풀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고있다.



### 무궤도전차도안

새형의 무궤도전차도안에서 특징적인것은 앞부분의 형태가 독특한것이다.

전차앞쪽 윗부분이 도드라져있어 주행시 공기의 회리저항을 감소시킬수 있게 되어있는 동시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듯 한 느낌을 준다. 무궤도전차의 무늬는 분홍색과 흰색, 풀색과 검은색, 흰색으로 되어있어 따뜻하고 균형잡힌 느낌이 안겨온다.



### 2층버스도안

2층버스도안에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버스의 앞면전체는 라틴형의 시계모양이며 1층과 2층사이에 시계가 설치되어있다.

버스의 색과 무늬는 노란색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회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불갈기를 날리는 쇠붙이처럼 형성되어있어 시련을 박차고 역 세계 전진하는 공화국의 강성한 기상이 잘 나타나있다.

본사기자

### 혈분의 자욱을 담긴 지사들

리봉창은 왜왕 히로히토를 처단하려다가 희생된 애국지사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가정사정으로 11살에 사립문창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얼마동안 통신사의 만원건설조 견습생으로 있었다.

1925년에 일본으로 가서 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독립운동에 참가할 뜻을 품고 1931년에 중국 상해에 건너갔다.

그곳에서 《한민족단》과 령계를 가지면서 왜왕을 처단할 결심을 굳힌 그는 다시 이해 11월에 수류탄 2개를 몸에 간수한채 일본 도교로 갔다.

1932년 1월 8일에 왜왕 히

### 리봉창

로히토가 괴뢰만주국 황제 부의와 육군관병식에 참석한 다음에 히로히토와 괴뢰만주국 황제 부의가 관병식에 참가하고 돌아올 때 도교 궁성 앞정문앞에서 기다리고있다가 그들이 타고 오는 마차에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은 터졌으나 거리가 멀어 명중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즉석에서 체포되어 도교의 이찌자감옥에 투옥되었다.

리봉창렬사의 의거는 내외에 큰 파문을 던지였다. 그가 왜왕행렬에 폭탄을 던

지고 체포된 다음날인 1월 9일 중국 국민당기관지 《국민일보》는 특호필자로 《한민 리봉창 저격 일본친왕 불행부중》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그 밖의 여러 신문들도 리봉창의 의거를 특종기사로 널리 소개하였다.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자극을 주었던지 현재의 일본군대와 경찰은 《국민일보》신문사를 습격하고 파괴하였으며 불행이라고 낸 신문사들은 모조리 폐쇄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농사일을 하느라 바빠서 농사차비를 착실하게 하였다.

동지는 겨울에 다 이르렀다는것을 일러오는 말로서 양력으로 12월 22일이나 23일에 든다. 동지날에는 한해가운데서 해가 제일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데 따라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음력으로 11월초순에 들면 예동지, 초순이 지나서 들면 로동지라고 하였는데 나이를 하루라도 먼저 먹고 빨리

본사기자



애국렬사 리봉창

### 사화

## 보쌈김치 (3)

그림 김 윤 일

이웃과 대문앞에 와서 가마에서 내린 대감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양태 넓은 갓을 쓰고 비단관복 입고 목이 긴 걸창자신을 신은데다가 부엌 부엌한 얼굴, 주름 많은 사발통같은 눈썹 한가운데 가늘게 치켜진 표정을 짐작할 수 없는 배색눈, 군살이 오른 턱에 매달린 실련 수염...

서울루른 량반관리가 분명한데 대감이니 대감이거부다 할뿐 무슨 직책을 맡은 무슨 대감인지도 몰랐다. 알아선 또 뭘하라.

《대감님, 행차하셨습니까? 루추하오나 어서 방으로 드시오이다.》 주인경감은 무작정 황송하여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맞이하였다.

《어허!》 큰 기침 한번으로 대답을 대신한 후 대감은 방으로 들어와 비단보우에 틀지게 년뻥 앉았다.

주인경감은 문가에 무릎을 꿇고앉아 분부하기를 기다리면서 술을 치라 할지, 육포를

내라 할지, 술을 치라면 어느 년을 들여보내야 할지... 속궁리를 분주히 굴러는데 놀지도 낫지도 않은 대감의 목소리가 드르르 굴러나왔다.

《듣자니 송도일판에 소문난 이 집 김치맛이 세상일미라 하니 다른 안주는 다 그만두고 김치만 맛을 보면 되겠네.》

《네, 분부대로 하옵지요.》

주인경감은 골신 절을 하고 뒤걸음쳐 나오면서 (옮겨나, 역시 그 보쌈김치때문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부엌으로 출을 추듯이 달력간 주인경감은 고분의 잔등을 두드려주며 《네가 담근 보쌈김치맛을 보시려구 한양대원에서 대감님이 행차하셨구나. 이런 정사가 어디 있었나. 어서 제일 잘 익은것을 한보를 꺼내서 감로주에 곁들어 차려 보내오라.》 하고 수선을 떠났다.

잠시후 술상을 받은 대감은

보쌈김치가 담긴 청자상감무늬보시지만 눈여겨 살피었다.

겉을 싹 과판 배추잎보름 반쯤 벗겨놓았는데 그속에서 노랗게 익은 배추가 통이 얇은 속모양 그대로 보였다. 깨끗한 그 갈과갈피에 빨간 대추며 노란 은행이며 사과, 배, 밤을 사뿐 물고 방긋 웃으면서 어서 드세요 하는듯 하였다.

감맛도는 김치죽물에 반쯤 잠김채 앞전혀 담겨있는 그 모양은 그저 김치가 아니라 마치 빨간 입술을 반쯤 열고 웃음짓는 미인의 모습같았다.

풍겨나오는 진한 향기에 벌써 스프르 군침이 들었다. 저가락으로 한입을 집어 입에 넣으니 평한 맛에 달고 새근한 맛이 한데 어울려 술을 녹이면서 어느새 혀와 함께 목까지 넘어가려 하는것을 가가스로 혀로 눌러잡고 어금기로 살짝 씹으니 그 사박사박 씹히는 맛이 또한 김치맛과 향기를 뿜어냈다.

(어허, 이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었구나! 소문날만도

가 담갔느냐?) 하고 물었다.

《네, 저의 집 부엌일을 하는 고분이라는 내인이 담근 것이오이다.》

《고분이? 내 좀 보고싶으니 얼른 불러오게.》

《네,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또다시 부엌으로 달려간 주인경감은 《야야, 대감님께서 보시겠다누나. 옷매무시를

지 못하게 풀어어드리었다.

《얼굴을 둘러라.》

대감의 목소리가 들리자 고분이는 얼굴을 들고 겁에 질린 눈길로 대감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인채 앉았다.

그 모습을 한동안 살펴본 대감은 (흠, 그리 굵지도 밍지도 얇아 부엌에 두고 쓰기에는 맞춥이로구나.) 하는 속생각을 굴리고 나서 《그래, 네가 이 김치를 담그느냐?》 하고 물었다.

《네, 담그기는 이 손으로 담그었사오나 맛은 감새가 낸 것인줄로 오오이다.》

《허허... 그 말이 또한 명담이로다. 감새야 옛적부터 있었지만 세상에 이런 김치가 생겨날수 있었겠느냐. 그래, 김치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넙은 배추잎으로 싸서 맛들인 김치라 하여 모두들 보쌈김치라 부르오이다.》

《오나, 이름 또한 멋스럽구나.》

대감의 깊은 주름살속에 감추어진 뉘네에서 한순간의 미를 짐작할수 없는 빛이 번득이었다.

《그만 나가보아라. 후날 류사사토를 거쳐 다시 찾거든 어김없이 분부를 거행하여 후회없이 하거라.》



평천구역 미래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바둑을 즐기고 있다.

### 원기회복에 좋은 가재미식혜

생선에 곡물을 적당히 넣어 만든 식혜는 바다와 떨어진 산간지방에서 생선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 소금으로 절여온데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우리 민족사에 기록된 것은 17세기초라고 한다.

식혜는 생선에 찹쌀, 좁쌀, 소금, 무우, 생강, 파, 마늘, 고추가루 등을 넣어 발효시킨 음식으로서 겨울철에 먹어야 제맛을 낼수 있다고 한다.

식혜는 해안지방에서 주로 담그었는데 함경도의 가재미식혜는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명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력을 북돋아준다고 하였으며 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므로 겨울철에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였다. 또한 한 조는 열을 조절하므로 대장을 리롭게 하고 당뇨병과 빈혈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발효식품인 식혜는 소화기 잘되기때문에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의 영양식품으로 좋으며 마늘이나 고추가루가 들어가기때문에 김치에서 얻을수 있는 항암효과도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 속담과 뜻

- ◇ 가정이 화목하면 만가지 일이 잘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마음이 맞고 성수가 나서 일을 하므로 만가지 일이 다 잘된다는것을 이르는 말.
- ◇ 집안 좁은건 살아도 마음 좁은건 못산다. 집안이나 집안이 화목해야 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 화목한 가정에는 보물도 부럽지 않다. 가정에서는 보물보다도 화목이 더 중요함을 이르는 말.
- ◇ 가는 점이 있어야 오는 점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풀어야 자기에게도 그만큼 정이 돌아온다는 뜻으로 인정이란 주고받는것이 일상적 일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